

▶ **센서스국 2021 연례 표본조사**

▶ **LA 카운티 23 만·OC 12 만·SD 4 만명...신규이민 크게 안늘고 전체 증가율도 미미**

미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가 총 194 만 5,880 명으로 1 년새 약 2 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200 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 미주 한인 인구 10 명 중 3 명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.

연방 센서스가 7 일 공개한 2017-2021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(ACS)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1 년 기준 미 전역 한인 인구는 총 194 만 5,880 명(혼혈 포함)으로 지난 2020 년 192 만 6,508 명과 비교해 1 만 9,372 명, 1%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인구는 56 만 2,497 명(혼혈 포함)으로 여전히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. 지난 2020 년의 경우 55 만 7,491 명으로 집계됐는데, 1 년 동안 5,006 명의 인구가 늘어났다. 하지만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다.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인구가 미 전역 한인 인구의 28.9%를 차지하는 등 미주 한인 10 명 중 3 명이 가주에 거주하고 있다.

LA 카운티의 2021 년 한인 인구는 22 만 9,593 명, 오렌지카운티는 11 만 9,593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. 뒤이어 샌타클라라, 샌디에고에서 각각 3 만 8,805 명과 3 만 162 명의 한인 인구가 거주 중으로 파악됐다.

LA 시의 한인 인구는 11 만 3,607 명으로 LA 카운티 한인 인구의 절반이 LA 시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뉴욕주의 한인 인구는 2021 년 14 만 2,143 명으로 추정돼 전년도 추정치 14 만 4,002 명 보다 약간 감소세를 보였다.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에 이어 세 번째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인 뉴저지 주의 한인 인구는 2021 년 10 만 9,856 명으로 추정돼 전년의 10 만 5,694 명에서 미세하게 증가했다.

뒤이어 텍사스, 워싱턴, 버지니아, 일리노이, 조지아, 메릴랜드, 하와이 주의 한인 인구는 순서대로 각각 11 만 1,701 명, 9 만 7,176 명, 9 만 3,481 명, 7 만 3,353 명, 7 만 2,887 명, 5 만 9,919 명, 5 만 6,202 명 등으로 집계되며 탑 10 주인 것으로 나타났다.

미주 한인들이 50 개 주와 푸에르토리코까지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가장 적은 주는 푸에르토리코(272 명), 와이오밍(1,101 명), 버몬트(1,477 명), 웨스트 버지니아(1,794 명), 사우스 다코타(1,831 명), 몬태나(1,872 명) 주 등은 2,000 명에 미달했다.

이번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미국 등 해외 이민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미주 한인 인구도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. 반면 미주 한인사회는 이민자와 함께 유학생, 기업인, 관광객 등 한국에서의 방문자 인구는 활발하다.

ACS 는 10 년마다 시행하는 센서스 인구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센서스국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표본조사다. 이번 자료는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5 년 단위의 인구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최근 5 년간 나온 센서스 자료 중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이다. 이번 자료는 미국과 한국 정부,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널리 이용되게 된다.